

셀트리온 '트룩시마' 캐나다 허가

5兆 북미시장 진출 '청신호'

혈액암 항암항체 바이오시밀러 합리적 가격 고품질 의약품 제공



트룩시마

셀트리온은 10일(현지 시간) 캐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혈액암 치료용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CT-P10)'의 판매 허가를 받으며 5조원 북미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캐나다 최초로 승인된 리톡시마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는 비호지킨림프종(NHL),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및 류마티스 관절염(RA)을 포함한 적응증으로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트룩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은 바이오젠(Biogen)이 개발하고 로슈(Roche)가 판매하는 '리톡산(성분명 리톡시마)'이다.

트룩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은 캐나다에서 연간 약 2500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셀트리온 제품의 해외 유통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트룩시마 북미 유통 파트너사인 테바(TEVA)와 대외 비즈니스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 론칭 시점

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해 11월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트룩시마 미국 판매 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이번 캐나다 허가를 계기로 전체 5조원에 달하는 오리지널의약품 북미 시장에 퍼스트 무버로 진입할 준비를 완료했다. 지난해 리톡산(맵테라)의 미국 매출은 약 4조 8000억원으로 집계된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의료비 절감과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바이오의약품 처방 대상인 신규 환자들에게 동일

성분 바이오시밀러의 처방을 장려하고 있으며, 오리지널의약품 대비 처방 프로세스를 간소화 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트룩시마의 허가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승인 소식을 알렸으며, 최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링크를 게시하는 등 바이오시밀러 처방 촉진을 위한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글로벌 시장에서 당사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임상 데이터로 증명하며 의료진의 신뢰를 축적해왔다"며 "캐나다의 환자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앞서 2014년 1월 캐나다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랩시마의 허가를 받았으며, 유포파트너사인 화이자(Pfizer)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ellee@metroseoul.co.kr

마약류 처방·투약정보 의사별 분석·전송

식약처, 빅데이터 활용 정보 제공 의사 스스로 적정성·안전 점검 유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의사에게 본인 이 처방한 환자수, 사용량 등을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한은 의료용 마약류 중 사용량이 많은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6개월간 수집한 529만 건의 처방자료를 의사 별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총 처방량 ▲환자 1인당 처방량 ▲1일 최대 용량(10mg, 서방정은 12.5mg) 초과 처방 건수 ▲

최대 치료기간(4주) 초과 처방 건수 ▲ 연령 금기(18세 미만) 환자 처방 건수 등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의사 본인의 처방 내역을 스스로 점검해 마약류 처방의 적정성과 안전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항목별로 전체 의사의 평균값과 같은 종별(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평균값 자료도 함께 제공하여 처방내역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PDMP)을 통해 처방내역 분석·비교 자료를 처방의사에게 제공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감소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식약처는 서한을 통해 '2018년 하반

기 의료용 마약류 사용 현황'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통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의료용 마약류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국내 환자는 중복 없이 1190만명으로 국민 4.4명중 1명이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여성(58%)이 남성(42%)보다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효능 군별로는 마취·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향후 대상 의약품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의사가 자신의 처방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JW그룹 산불 피해지역에 6000만원·의약품 전달

화상용 스프레이·진통제 등 구호품

JW그룹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에 따뜻한 손길을 보냈다.

JW그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동해안 일대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6000만원 상당의 성금과 의약품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JW그룹은 지주회사 JW홀딩스를 비롯해 JW중외제약, JW신약, JW생명과학, JW메디칼, JW바이오사이언스 등 주요 사업회사로부터 총 50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정 기탁했다. 성금은 복구사업과 구호물품 지원, 피해주민들의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이세경 기자

이와 함께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1천만 원 상당의 화상용 스프레이, 습윤밴드, 진통제, 인공눈물 등 긴급 구호의약품을 이재민에게 신속히 전달할 방침이다.

JW그룹 관계자는 "강원도 산불 피해로 큰 상처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보금자리를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W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사회공헌위원회(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중외화술복지재단 중심으로 진행되던 공헌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그룹 차원의 활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 16일 코어랩 심포지엄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은 오는 16일 오후 4시부터 6시 20분까지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코어랩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화융합의학연구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상 현장 기반 맞춤형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김영주(사진)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장의 사회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유방암 치료를 위한 파마바이오틱스와 식물약(김종민 이화의대 의과연구소 산부인과연구실 박사)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이세경 기자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물적분할 전문성 높여 '경쟁력 강화' 나선다

창립 40주년 앞두고 한단계 도약 분할 직후 외부자본 1000억 유치



E-LAND PARK LTD. Food Service Department

이랜드는 이랜드파크의 외식사업부 분을 물적 분할해 외식전문회사를 설립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랜드파크는 호텔·레저 및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이랜드그룹 계열사로 호텔 6개와 리조트 17개 등 호텔·레저 사업부분과 애슐리, 자연별곡 등 16개 브랜드를 운영하는 외식사업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신규 법인으로 물적 분할 되는 외식사업부분은 분할 후 외부자본 유치를 즉시 진행한다.

급변하는 외식 트렌드 변화로 인해 업계의 부침이 심한 상황에서도 이랜드 외식사업부분은 지난해 급격한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전국에 500여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8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예비타(현금창출능력)는 300억으로 전년 대비 43%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견실한 실적을 바탕으로 외식사업부분은 물적분할 직후 영구채와 전환 우선주 등으로 1000억대 규모의 외부 자금을 유치한다. 자본유치 자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전액을 상환, 금융부채비율을 제로화 시킬 예정이다.

금융기관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이후에도 남은 여유 자금을 중앙키친시스템(Central Kitchen) 등에 투자해

품질 개선하고 고객 요구를 반영한 신 메뉴 개발에 역량을 쏟을 예정이다.

호텔·레저사업부분으로 구성하게 될 이랜드파크는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외식사업부 법인과 함께 지난해 말 대규모 자본유치를 받은 사이판 MRI와 상장사 이월드 등 초우량 자회사를 보유한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랜드파크는 감정평가액 4000억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호텔과 리조트 전문 사업법인으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면서도 지속적인 유휴 부동산과 비영업 자산의 매각을 통해 재무건전성 작업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이랜드파크는 우량한 자회사들 중심으로 무차입 경영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각 계열사별 경쟁력 강화를 지속해 그룹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파크는 지난 4일 물적 분할결정에 대한 이사회를 결의했으며, 오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총회를 거쳐 한 달간의 채권자 이의절차 기간을 두고, 5월 말경 분할 기일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아워홈 푸드엠파이어 마곡 이대서울병원점

/아워홈

아워홈 이대서울병원·교동산병원 신규매장 오픈

아워홈이 병원 컨세션 사업을 강화한다. 아워홈은 자사 프리미엄 푸드홀 브랜드 푸드엠파이어가 병원에 신규매장을 잇따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하는 곳은 서울 마곡에 위치한 이대서울병원과 15일부터 진료 시작하는 대구 계명대학교교동산병원을 시작으로 아워홈은 신촌 세브란스점, 창원 파타마병원점에 이어 총 4개의 병

원 컨세션 매장을 운영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푸드엠파이어 매장은 기존 병원 컨세션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한식'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구성했으며 보다 다양한 메뉴 제공을 위해 외부 브랜드도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병원 고객 특성을 고려한 저염·저글루텐 메뉴를 구성해 선택의 폭을 다양화했다. /박인용 기자

광동제약 봄내음 전하는 미술전시 '봄 별 아래展'

광동제약은 서울 서초동 본사 2층 가산천년정원에서 임직원과 방문객을 위한 미술전시 '봄 별 아래 전(展)'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봄'을 주제로 정선아, 최원석 등 작가 7명의 회화 총 2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작들은 한지나 비단에 그린 한국화를 재해석했으며, 따스

하면서도 화려한 색감의 화풍에 꽃과 동물을 담아 봄의 정취를 물씬 풍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꽃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작품을 통해 따뜻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임직원과 내방객들에게 휴식과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